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처참'... 도움의 손길 554억 모여

헬기조종사 포함 총 26명 숨져
6개 시군·31개 지역 통신 불가
중대본, 재난구호사업비 등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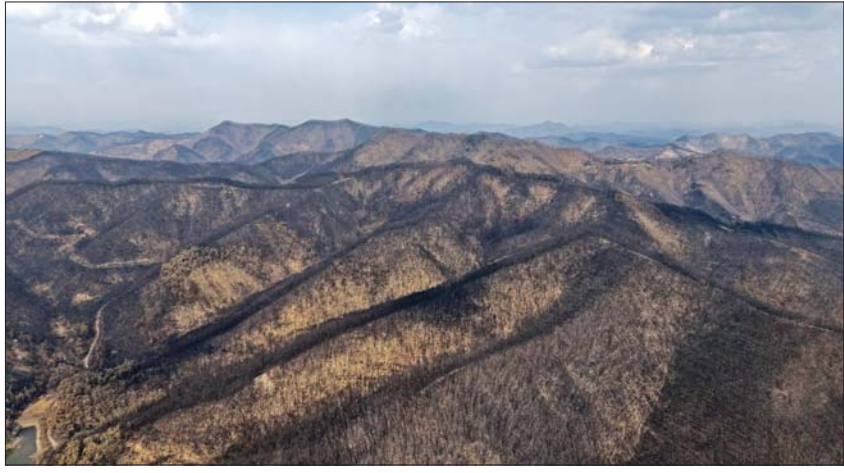
경북지역 대형 산불이 진화된 후 피해가 잠정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처참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불로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한 26명(안동 4, 청송 4, 영양 7, 영덕 9, 의성 2명)이 숨졌다.

안동에서는 옛 안동역 앞마당, 의성은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 강당, 청송엔 보건의료원 주차장, 영양에는 군청 앞마당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으나 영덕은 유가족의 반대로 아직까지 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다.

산불로 6개 시군 31개 지역에서 통신이 불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무선 중계기 921개가 불에 탔다. 유선 전화와 인터넷 7086개 장비도 불에 탔으나 빠르게 정화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7개 구간 중 1개 구간이 차단됐으나 다행히 정전구간은 없었다. 주택·건물의 7546개 전력량계 등이 불에 타면서 피해를 봤다. 1751개(안동 86, 청송 230, 영덕 1,



지난 29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이 산불에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뉴스스

420, 영양 15)지역에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시설은 43개(안동 22, 의성 4, 청송 9, 영양 3, 영덕 5개)가 피해를 입었고 경북도는 단수지역 7곳에는 운반급수를 지원하고 병물 12만 6749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은 3285개(안동 1092, 의성 292, 청송 625, 영양 104, 영덕 1172개)가 탔다.

문화재는 사찰 5개(안동 2, 의성 2, 청송 1), 불상 2개(의성 2개), 정자 2개(안동 1, 청송 1개), 고택 12개(안동 6,

청송 6개), 기타 4개(안동 3, 영양 1개) 등 25개가 피해를 봤다.

농작물 482ha, 시설하우스 281동, 축사 43동, 농기계 746대, 농산물 유통기공공장 6개와 축산창고 3동도 불에 탔다.

한우 13마리, 돼지 2만4470마리, 양봉 241통도 소실됐다.

영덕에선 노물항의 어선 16척과 인양크레인 1대, 양식장 6개 중 2개가 전소됐고 나머지는 일부 피해 및 단전 피해를 봤다. 수산물 가공업체 1개의 공장도 모두 탔다.

은어양식장에서는 단전으로 은어

50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번 산불로 화마가 휩쓸고 간자리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시설 43곳의 1991명(포함 283, 안동 1023, 의성 231, 청송 320, 영양 29, 영덕 11, 울진 94명)도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경북도는 피해주민에게 불편함 없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바로 처리하는 한편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자를 즉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세 부담 완화와 공공요금 감면, 긴급대출 지원 등 재정과 세제 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약 554억이 모금됐으며, 기부금은 식료품 구입 등 이재민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통제 구간·기간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화순군이 3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최종 9200명, 55억여 원 규모로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가오는 '2025년 화순 봄꽃 축제'에 맞춰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신안김밥 9종, 식당에 기술 전수

전남 신안군은 신안김밥 9종을 관내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

신청은 판매가 준비된 업체들로 3월 31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에서 받는다.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식당을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김밥페스티벌을 통해 판매됐던 김밥 중 인지도가 높았던 김밥을 선택해 레시피를 교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진흥원

'부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열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진흥원)은 다음 달 3일 해운대구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과 함께 '부산 게임개발자 콘퍼런스: 게임 데브인 사이트 라운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과 오렌지플래닛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글로벌게임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게임 개발자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순서로 BIC(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2025년 BIC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이어 ▲CFK의 '콘솔 시장 입문 전략' 등 현업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게임 개발자들의 데모 시연과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금정구, 자원순환행정 '최우수'

부산시 금정구는 부산시에서 진행된 구·군 자원 순환 행정 종합 평가에서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금정구는 지난해 지역 정화 자율 봉사단체인 금정클린지킴이의 지역 순회 모듬 청소 4회 추진하면서 무단 투기 예방 가두 피켓 홍보를 함께 진행해 무단 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에 힘썼다.

또 상가 앞 담배꽂초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매봉기 가두 및 상가 방문 홍보를 진행해 상가의 '내 가게 앞 자율 청소' 참여를 높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 1호 중처법' 현재서 다룬다

전남도, 구제역 진정세... 내달 종식 가능성

과잉금지 원칙위반 대해
시장경제 혼란 가능성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 A(60대)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중처법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공정을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 대기업도 전 공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산업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보다 반드시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형사 책임은

원청이 모두 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률이 일부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시 하청은 형량이 약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점도 짚었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A씨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했고, 현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는 연기된다.

한편 A씨 등은 2022년 3월 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나를 연속 확진 사례 없어

전남 축산농가를 덮친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확산세가 꺾이면서 이대로 라면 4월 중·하순 종식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차단방역 효과에 안도하면서도 축산 농가가 밀집된 인근 시·군, 한우 이외 우제류로의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암도포면 한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 감염소가 발견된 이후 24~27일, 나흘 연속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남엔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단 한 건의 의심 신고도 접수되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시, 대전서 펼친 '관광설명회' 성료

대전 여행업체 만나 B2B 상담

전남 여수가 대전권 여행사와 관광기관 등 130여 명을 초청해 펼친 '2025 여수 관광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전 ICC호텔이틀간 개최한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한 공동 마케팅 일환으로 마련됐다.

남해안 바다를 낀 여수 지역 숙박업체와 관광시설 17곳이 대전 여행업체들과 만나 기업 간 거래(B2B) 상담을 펼치며 관광 자원과 방문객 혜택을 알렸다.

시는 최신 관광정책과 지역 축제, 스마트 관광을 위한 '여수엔' 앱 등 여



여수시는 대전 ICC호텔에서 이틀간 '2025 여수 관광설명회'를 진행했다.

수의 핵심 전략을 소개하는 발표와 홍보 영상을 상영해 대전 지역 여행업체의 관심을 끌었다.

또 대덕문화관광재단과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자체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수(전남)=전정선 기자 spirit@

사하구,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

총 66억 예산 투입

사하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사하구는 동아대학교와 부산여자고등학교 인근 거리를 전선로 전신주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로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낙동대로516번길과 낙동대로520번길 일원의 약 600m 구

간으로, 이곳은 유동 인구가 차량 통행이 많아 전주 등 지장물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통학로 또는 전통 시장, 도시재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3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부산=이도식 기자